

2019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논술가이드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수시모집)	4
논술고사 가이드	6
2019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9
2019학년도 자연계열 모의논술고사	18
논술우수자전형 주요사항	25
논술고사 안내	27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28
장학제도	29
캠퍼스 안내	32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수시모집)

□ 전형별 모집인원 (정원 내)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특기자/실기		수시 모집 계
			학교생활 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 배려자		논술 우수자	어학 우수자	일반학생 (실기)	
인문과학 대학		국어국문학과 *	14	2	-	6	9	-	-	31
		영어영문학과 *	20	-	-	6	13	6	-	45
		독일어문·문화학과 *	9	-	-	5	5	3	-	22
		프랑스어문·문화학과 *	9	-	-	5	5	3	-	22
		일본어문·문화학과 *	17	-	-	6	9	4	-	36
		중국어문·문화학과 *	17	-	-	6	9	4	-	36
		사학과	10	-	-	5	6	-	-	21
사회과학 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15	-	-	5	8	-	-	28
		심리학과 *	13	-	2	5	9	-	-	29
		지리학과 *	12	-	-	5	8	-	-	25
		경제학과	20	2	-	8	11	-	-	41
		경영학과 *	25	-	2	10	14	-	-	5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8	2	-	7	10	-	-	37
		법학과	16	-	2	8	11	-	-	37
법과대학		지식산업법학과	17	2	-	8	11	-	-	38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	16	-	-	5	6	-	-	27
		통계학과 *	16	-	-	5	7	-	-	28
		화학과 *	15	-	-	5	7	-	-	27
지식 서비스 공과대학	자연	서비스·디자인공학과	24	-	-	10	10	-	-	44
		융합보안공학과	29	-	-	11	16	-	-	56
		컴퓨터공학과 *	15	-	2	5	10	-	-	32
		정보시스템공학과	17	-	-	5	10	-	-	32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17	-	-	5	10	-	-	32
		바이오식품공학과	14	-	-	5	9	-	-	28
		바이오생명공학과 *	17	2	-	5	12	-	-	36
간호대학	인문	간호학과(인문) *	31	-	-	6	8	-	-	63
		간호학과(자연) *				8	10			
Health & Wellness College	자연	글로벌의과학과	9	-	-	5	5	-	-	19
		식품영양학과 *	12	-	-	7	8	-	-	27
	인문	사회복지학과	13	-	2	7	9	-	-	31
	예체능	스포츠레저학과	정시모집으로 선발							
	자연	운동재활복지학과	10	-	-	5	6	-	-	21
뷰티 생활산업 국제대학	인문	글로벌비즈니스학과	9	-	-	4	6	4	-	23
	자연	의류산업학과 *	17	-	-	8	10	-	-	35
	예체능	뷰티산업학과	8	-	-	-	-	4	20	32
	인문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	18	-	-	6	8	-	-	32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특기자/실기		수시 모집 계
			학교생활 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 배려자	교과 우수자	논술 우수자	어학 우수자	일반학생 (실기)	
사범대학	인문	교육학과 *	7	-	-	8	-	-	-	15
		사회교육과 *	7	-	-	8	-	-	-	15
		윤리교육과 *	7	-	-	8	-	-	-	15
		한문교육과 *	7	-	-	8	-	-	-	15
		유아교육과 *	10	-	-	8	-	-	-	18
미술대학	예체능	동양화과	-	-	-	-	-	-	20	20
		서양화과	-	-	-	-	-	-	20	20
		조소과	-	-	-	-	-	-	20	20
		공예과	-	-	-	-	-	-	23	23
		산업디자인과	-	-	-	-	-	-	23	23
음악대학		성악과	-	-	-	-	-	-	9	9
		기악과	-	-	-	-	-	-	26	26
		작곡과	-	-	-	-	-	-	12	12
융합문화 예술대학	인문	문화예술경영학과	11	-	-	5	6	-	-	22
	예체능	미디어영상연기학과	-	-	-	-	-	-	21	21
		현대실용음악학과	-	-	-	-	-	-	21	21
		무용예술학과	-	-	-	-	-	-	24	24
합계			588	10	10	257	311	28	239	1,443

※ ‘*’ 표는 교직과정 설치학과 표시임

1. 시행 배경

복잡성, 다양성, 가변성이 더욱 심화되는 오늘날의 지식정보사회는 융복합적·탄력적·관계적 사고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이 다시 논술고사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은 이번 논술고사를 통해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며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비판적·융합적·창의적 소질에 강점을 보이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융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성격과 소질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지적·정서적·문화적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인재의 산실로 우리대학 환경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출제 유형

우리대학은 논술고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은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 문제의 구성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의 구체적 문제 상황이나, 수리적 문제 상황에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 인문계열의 경우, 4~5개의 제시문에 2개의 문항을 출제합니다. 제시문은 크게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글과 소개된 사례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나 관점들을 소개하는 글로 이루어집니다. 제시문에 나오는 사례와 관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나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문항은 소개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접근하는 상반된 견해나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그 견해나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개진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 자연계열의 경우, 3~4개의 문항을 출제하며 각 문항은 2개에서 4개 사이의 하위 문제를 포함합니다. 각 문항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리적 문제 상황을 만들어 제시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 문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로만 구성함으로써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답안의 평가

- 인문계열의 경우, 답안의 내용과 논지 전개 과정을 점검하여 주어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수험생의 종합적 판단력,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논증 구성 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적 현상을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3. 논술고사의 특징

1) 인문계열

- 구체적인 사례와 그 사례에 접근하는 상반된 관점들을 소개하는 자료들로 구성
-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고 각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결 방안을 유추하며 각 방안에 대한 수험생 자신의 평가와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논증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
- 제시문의 내용 비교, 분석, 적용, 평가 등을 별개로 작성하는 문항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문항을 출제

2) 자연계열

- 수학 문제로만 구성하여,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안 작성 가능
- 각 문항은 수리적 문제 상황과 그 상황을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세부 문제들로 구성

4. 대비전략 (고득점 Tip, 유형별 접근법)

1) 인문계열

- 교과서에서 배운 다양한 이론과 관점들을 구체적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질 것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어떤 원칙에 입각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
- 현상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에 만족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보다 폭넓은 배경 또는 심층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질문을 던져 볼 것
- 자기 견해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력한 다른 견해와 비교를 통해 자기 견해의 우위를 보여줄 논거를 제시할 것
-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의 사례와 핵심적인 관점들을 적절히 활용 또는 비판하되, 자신의 논지로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수렴하여 구성할 것
- 답안 집필에 앞서 간략한 개요를 구상하여 내용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사전에 점검할 것

2) 자연계열

-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가져 수학적 사고의 기초를 체득할 것
- 수학은 문제 하나하나를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개념, 원리, 논리를 이해하여 스스로 풀어나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학적 언어이므로 평상시 교과서를 학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내도록 할 것
- 수학의 기초 원리들이 자연 현상의 과학적 설명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질 것
- 일상의 사건들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며, 반대로 수학이 일상적인 사건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질 것
- 답안 서술 과정에서 식만 나열하지 말고, 풀이과정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 답안 도출 과정과 계산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5. 평가기준

• 인문계열

평가항목	배점
문제에 맞는 제시문 분석	90%
문제에 맞는 제시문 평가	
폭과 깊이를 갖춘 논증 구성 및 정당화	
정확한 어법과 표현	10%

• 자연계열

평가항목	배점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각 문제의 답안 서술 각 단계 마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수리적 풀이의 정확성	도출 과정과 계산 결과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감점
풀이과정의 논리성	답안 서술 과정에서 충실한 논리적 설명의 제시 정도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감점

2019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1.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문제당 1,000자 내외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키즈존(No Kids Zone)’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7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이 같은 진정을 낸 진정인은 지난해 9월께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 9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이탈리아 음식점인 7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사업주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살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이탈리아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식당 사업주의 노키즈존 운영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나)

애덤 스미스가 발견해 낸 인간의 공통적 욕구, 혹은 성향(propensity)은 스미스 경제 분석의 바탕이 되고, 나아가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룬다.

그 첫 번째 성향은 바로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 한다.”라는 꽤 초보적인 명제다. 스미스가 발견한 것은 ‘현재 상황을 보다 개선해보려는 욕구,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잔잔하지만, 태아 적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욕구’였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인간이 아무런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을 원치 않을 만큼 현실에 대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만족할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을 것이다.”라고 스미스는 적고 있다. 두 번째로, 스미스는 인간의 교역 본능을 지적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공통된 성향이다.”라고 말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들을 사회가 억누르기보다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이기심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이기적 인간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관용, 인정, 동포애 따위에만 의존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국가는 빈곤해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타인의 자비심에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신을 도움으로써 타인들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은 뻗쳐 오게 마련이다.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생산, 교환, 소비, 직업 선택, 계약 등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기반 위에서 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가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오히려 사회의 자원 배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중요한 기본 원리이다.

경제학사상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한 구절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공언한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아무리 돼지 잡기, 맥주 양조, 빵 굽기 등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려 들진 않을 것이다. 물론 스미스는 인간이 오직 이기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다만 이기적 본능이 친절함, 박애심, 희생정신 같은 것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 심성의 고귀한 측면에만 사회를 맡기고 미래를 의지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한 본능인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다)

내가 당신을 방 안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앉히고 100달러를 준다고 하자. 당신은 낯선 사람과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얼마를 줘도 좋다. 상대방이 그 돈을 받으면 두 사람 다 그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100달러를 모두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신은 단 한번만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방을 나간 다음에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을 결코 다시 볼 일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 이런 상황(註: 단발성 최후통첩게임이라고 한다)은 논리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론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진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을 시험해 보자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여겨졌지만, 1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몇 년 전 에머리 대학교의 인류학자 조지프 헨리히(Joseph Henrich)가 이끄는 연구진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단발성 최후통첩게임 실험을 탄자니아 농부에서 페루 원주민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15개 문화권에서 실시했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내기에 걸린 돈을 그 문화권에서 하루나 이틀의 인건비로 정했다. 연구자들은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동북부의 아체(Ache) 족과 인도네시아의 라멜라라(Lemelara) 족은 평균 50퍼센트 이상을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모든 문화권이 한결같이 경제적인 ‘이상’인 엄격한 이기주의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야박한’ 문화권도 평균 25퍼센트 이상의 돈을 내놓았다. 평균적으로 ‘수령자’들은 대개 25퍼센트 이하일 때 돈을 받지 않았다. 헨리히와 동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호혜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양보해서라도 물질적 보상을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 협력적인 사람들은 잘 대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벌을 주려고 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명과 공동체의 형성, 사회적 질서와 조화, 더 나아가 발전이 개인의 이기심을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또 호혜적 협력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강하게 처벌하는 규율의 확립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는 결국 공익 또는 공동선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자유의 행사가 공동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영세한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선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추구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하는 공동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평등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 차별이란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를 주는 것, 누진세 제도, 가중처벌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권위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는 차등 행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차별 취급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기능이 필수적인 직업에서 해당 기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을 채용하거나, 소방대원 채용에서 진화 작업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 지원을 허용하는 것 등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비합리적 차별은 동

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준다거나, 공공 기관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뽑는 것이 비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차별 대우를 받는 양쪽이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만 같으면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이를 테면 내신과 논술 성적의 합이 같아야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1】

(가)에 제시된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제시문 (나)와 (다)에 드러난 관점을 따를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노키즈존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기>의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비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누고, 각각을 그렇게 나눈 이유를 쓰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시문 (가)의 노키즈존 식당에서 이루어진 차등 행위가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를 상세히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 <보기> -----

- (1) 게임방에서 10시 이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 (2)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흑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
- (3) 신발 가게에서 비장애인용 신발만 팔고, 장애인용 신발은 팔지 않는 것
- (4) 동성 간의 혼인 신고를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2.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가. 출제 의도

이번 인문사회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와 윤리〉, 〈생활과 윤리〉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와 그 해결에 응용하게 함으로써 종합적 사고,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 및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함으로써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한 사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 나름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노키즈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며, 두 번째는 노키즈존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인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동일한 사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제시문의 출처 및 관련 교과서

□ 제시문 (가)

출처:

- 〈인권위 “‘노키즈존’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 행위’〉, 한겨레신문(2017.11.24.) 기사

관련 교과서:

- 남궁달화 외 (2014). 『사회와 윤리』 (p. 198 및 p. 271). 교학사
- 손병로 외 (2014). 『법과 정치』 (pp. 101-102). 금성출판사
- 육근록 외 (2014). 『사회』 (pp. 43-45). 비상교육

□ 제시문 (나)

출처:

- 토드 부크홀츠 저, 이승환 역 (2007).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p. 47-48). 김영사
- 김종호, 안병근 (2014). 『경제』 (p. 41). 씨마스

관련 교과서:

- 박형준 외 (2014). 『경제』 (pp. 26-27). 천재교육.

□ 제시문 (다)

출처:

- 마크 뷰캐넌 저, 김희봉 역 (2011). 『사회적 원자』 (pp. 160-163). 사이언스북스
- 조성민 외 (2014). 『생활과 윤리』 (pp. 167-168). 비상교육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 (2014). 『윤리와 사상』 (p. 271). 미래엔

□ 제시문 (라)

출처:

- 손병로 외 (2014). 『법과 정치』 (p. 101). 금성출판사
-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차별!〉
인권위 블로그 포스팅(<https://blog.naver.com/nhrck/90249382>)

관련 교과서:

- 육근록 외 (2014). 사회 (pp. 43-45). 비상교육

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한겨레신문 2017년 11월 24일 기사를 발췌, 수정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사회〉, 〈사회와 윤리〉 및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제시문은 노키즈존 식당에서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성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이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소개한다. 인권위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상업시설 운영자들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됨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제시문 〈가〉를 통해 인권위에서 ‘아동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및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저, 이승환 역)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두 가지 공통적 욕구를 상세히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현재 상태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들을 사회가 억누르기보다 이용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스미스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생산, 소비, 교환, 계약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사회의 자원 배분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스미스가 인간을 오직 이기적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로 간주한 것은 아니나, 스미스는 이기적 욕구를 친절함, 박애심, 희생정신과 같은 인간 심성의 고귀한 측면보다 인간 행동의 더 강력한 동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한 욕구인 이기심을 억압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와 〈사회적 원자〉 (마크 뷰캐넌 저, 김희봉 역)에서 발췌,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단발성 최후통첩게임 실험이 전 세계의 서로 다른 15개 문화권에서 실시되었을 때의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해석한다. 단발성 최후통첩게임에서 수령자는 제안자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의 돈이더라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문화권에서 한결같이 경제학적 이상에 해당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결과가 관찰되었다. 즉, 수령자들은 평균적으로 25퍼센트 이하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호혜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아가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개인의 이기심의 억제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협력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평등권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가져와 이를 보충하였다. 제시문은 차별 행위 가운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예와 함께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은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할 때” 발생한다. 이를 테면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를 주는 차별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의 차별이므로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반면, 공공 기관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뽑는 차별은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무관한 것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므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보듯이 어떤 차별이 비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차별이 어떤 목적과 이유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라. 문제 해결

【문제1】

본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조망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주어진 사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응시자의 견해를 개진하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를 통해 지원자의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시설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성인의 상업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문 <나>에 드러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즉,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곧 공공의 이득 창출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노키즈존의 금지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주는 자신의 상업시설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놓칠 수 있고, 이는 상업시설 운영자의 이윤 추구에 해가 된다는 점, 노키즈존과는 반대인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즉 아동 및 아동 동반 성인에게 특화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기회, 서비스, 공적 이익이 창출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시문 <다>에 드러난 사회 운영 원리로서 공정성 및 호혜성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성인의 상업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문 <다>에 드러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즉, ‘사회 운영 원리로서 공정성과 호혜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키즈존의 금지가 가져올 긍정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호혜성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작용하는 원리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의 억제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협력이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불가결함을 역설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노키즈존의 금지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동등하게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야기되는 상업시설 이용 상의 불편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그럽게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크게는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는 여러 걸림돌 중의 하나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이 대비되는 관점에서 노키즈존의 문제를 고찰한 후, 노키즈존 문제의 해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응시자 본인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개진해야 한다. 먼저,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 중 어느 쪽을 제시하여도 무방하나, 그러한 입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시문 <나>에 제시된 스미스의 자유 시장 경제 운영 원리를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시문 <다>의 관점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효과적인 개입 형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시문 <다>에 소개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미 공정성과 호혜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과도한 이윤 추구만을 규제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쪽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까지 논술한다면 더욱 심도 있는 답안이 될 것이다.

【문제2】

본 문제는 제시문에 제시된 일반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때 따라야할 세부 원칙을 추출하여, 그 원칙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해, 적용, 일반화 및 논리적 전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기>의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둘째, 그렇게 나눈 각각의 이유를 제시한 다음, 셋째, 그 이유들 모두를 관통하는 세부 원칙을 추출하고, 넷째, 그 원칙을 적용하여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이 합리적 차별인지 아닌지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여야 한다.

첫째, <보기>의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이를테면 (1)과 (3)은 합리적 차별로, (2)와 (4)는 비합리적 차별로 나눈다고 해 보자.

이제 둘째로,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 각각의 이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시문 (라)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달리 취급할 때” 비합리적인 차별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왜 (1)과 (3)의 차별은 동일하지 않은 자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2)와 (4)의 차별은 동일한 자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는가이다. (1)의 경우, 청소년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릴 수 없는 미성숙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다른 조건에 있으며,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방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3)의 경우, 장애인은 종류도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요도 소수에 불과한 신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조건에 있으며, 그런 조건에 맞는 신발을 구비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가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애인 전용 신발 가게라는 대안이 있다는 측면에서 신발 가게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2)의 경우, 백인과 흑인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른 피부색의 고객을 다 받아들이는다고 해서 레스토랑의 운영이나 다른 고객의 기분에 심각한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4)의 경우 결혼한 쌍이 동성과 이성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양쪽의 혼인 신고를 다 받아들이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국가나 사회 질서나 도덕의 유지를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또한 동성결혼자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이유들 모두를 관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세부 원칙을 추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위의 이유들에서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조건들을 무시할 경우 그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하게 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조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반대로 목적의 훼손이 심하지 않은 반면, 관련된 사람들이 입게 될 혜택은 클 경우 그 조건의 차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원칙에 의거해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이 합리적 차별인지를 판정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식당에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받아들이더라도 약간의 불편감은 있을지언정 식당 운영에 심각한 해가 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은 크다는 점에서,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이에 기반을 둔 차별 역시 비합리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물론 식당이 받을 피해를 다르게 예상하여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3. 평가기준

가.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15	* 제시문 <나>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노키즈존 금지 결과를 예상하는 데 적절히 적용하였는가?
	15	* 제시문 <다>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노키즈존 금지 결과를 예상하는 데 적절히 적용하였는가?
	15	* 노키즈존 문제 해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개입 형태는 어떠한지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문제2	15	* <보기>의 예를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로 나누고, 그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15	* 그 이유들을 관통한 공통된 세부 원칙을 명료하게 추출하였는가?
	15	* 그 세부 원칙을 적용하여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술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나. 평가내용

【문제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나>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키즈존 금지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적절히 예상하기
- 둘째, 제시문 <다>에 드러난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키즈존 금지로 인해 나타날 긍정적 결과를 적절히 예상하기
- 셋째, 노키즈존 문제 해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반대쪽의 반박까지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드러난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동을 동반한 성인의 상업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문 <나>에 드러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응시자가 예상하는 결과의 개연성과 결과 예상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한다.

둘째 부분

- 제시문 <다>에 드러난 사회 운영 원리로서 공정성 및 호혜성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요약한다.
- 인권위의 판단을 따를 경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제시문 <다>에 드러난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응시자가 예상하는 결과의 개연성과 결과 예상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한다.

셋째 부분

-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 중 어느 쪽을 제시하여도 무방하나, 그러한 입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시문 <나>에 제시된 스미스의 자유 시장 경제 운영 원리 등을 논거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개입이 불필요함을 주장해야 한다.
-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제시문 <다>에 제시된 실증적 연구의 결과와 관점 등을 논거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개입이 필요함을 옹호해야 한다.
-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효과적인 개입 형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안해야 한다.
- 국가의 개입에 대한 찬반 논거와 제안한 개입 형태의 논리성 및 적절성을 점검한다.

【문제2】

2번 문제의 답안은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기>의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기

둘째, 그 이유들 모두를 관통하는 세부 원칙을 추출하기

셋째, 그 원칙을 적용하여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기

첫째 부분

- <보기>의 네 행위들을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로 나누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달리 취급할 때” 비합리적인 차별이 된다는 공통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한다.
- 각 행위들을 구분한 이유가 앞의 공통된 기준 하에서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점검한다.
- 합리적 차별의 이유와 비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대조를 이루도록 기술되었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

- 네 행위를 구분한 각각의 이유마다 일관성 있는 세부 원칙이 추출되었는지 점검한다.
- 추출한 원칙이 네 행위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한지 점검한다.
- 추출된 원칙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점검한다.

셋째 부분

-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 대우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둘째 부분에서 추출된 세부 원칙을 노키즈존 상황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노키즈존 식당의 차별이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차별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2019학년도 자연계열 모의논술고사

1.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자연계열)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지정된 답안지 양식 내 작성

〈문제 1〉 $a < b < c$ 를 만족하는 상수 a, b, c 에 대하여 $P = a - b$, $Q = b - c$, $R = c - a$ 로 나타낼 때,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총 25점]

(1) 함수 $f(x) = |x - a| + |x - b| + |x - c|$ 의 최솟값을 상수 P, Q, R 중 한 문자만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8점]

(2) 함수 $g(x) = (x - a)^2 + (x - b)^2 + (x - c)^2$ 의 최솟값을 상수 P, Q, R 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7점]

(3) $a \leq x \leq c$ 인 범위에서 함수 $h(x) = (x - a)^3 + (x - b)^3 + (x - c)^3$ 의 최솟값을 상수 P, Q, R 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10점]

〈문제 2〉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 하고, 두 정점을 쌍곡선의 초점,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한다. 초점이 x 축 위에 있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쌍곡선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x^2}{a^2} - \frac{y^2}{b^2} = 1 \quad (a > 0, b > 0)$$

여기에서 $c = \sqrt{a^2 + b^2}$ 이라 할 때, 이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는 $(-c, 0), (c, 0)$ 이다. 그리고 이때 쌍곡선 위의 점 (x, y) 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는 $2a$ 이다.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전파신호를 내보내면 일정한 속도로 동심원을 이루며 퍼져나간다. 평면 위의 두 점 A, B 에서 동시에 같은 전파신호를 내보냈을 때, 두 신호를 수신한 시간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은 쌍곡선을 이루며, 이 쌍곡선의 초점은 점 A, B 이다.

전파신호를 발사하는 A 기지와 B 기지가 직선 해안선을 따라 240 km 떨어져 있고, 전파의 속도는 200,000 km/s 라고 하자. 좌표평면에서 해안선을 x 축, 두 기지의 위치를 $A(-120, 0), B(120, 0)$, 바다를 집합 $\{(x, y) | y > 0\}$ 으로 나타내고, 두 기지에서 동시에 전파신호를 내보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어느 배에서 A 기지에서부터의 신호가 B 기지에서부터의 신호보다 0.0005 초 늦게 수신되었다면, 이 배가 두 점 A, B 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모양의 항로를 따라가서 해안에 닿는 지점의 x 좌표를 구하시오. [5점]

(2) A 기지와 B 기지 사이의 중점에서 $20\sqrt{70}$ km 떨어져 있는 어느 배에서 A 기지에서부터의 신호가 B 기지에서부터의 신호보다 0.001 초 빨리 수신되었을 때, 이 배의 위치의 x 좌표를 구하시오. [10점]

〈문제 3〉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가 시간 $t = 0$ 일 때 원점 O 를 속도 $v_0 = 2$ 로 지나서, 가속도 $a(t) = -e^t$ 으로 변화하고 있다. [총 15점]

(1) 점 P 가 양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도달한 위치를 구하시오. [8점]

(2) 점 P 가 시각 $t = 0$ 부터 시각 $t = 2$ 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7점]

〈문제 4〉 단백질의 구성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이들 아미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긴 사슬 모양의 1차 단백질 구조를 이루게 된다. 결국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형태는 좌우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종류가 n 가지인 아미노산 m 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의 수는 n^m 가 지가 된다. 예를 들어 A, B, C 세 종류의 아미노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AA, AB, AC, BA, BB, BC, CA, CB, CC으로 $9(=3^2)$ 가지이다. [총 15점]

(1) A, B, C, D 네 종류의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진 단백질들 중에서 아미노산 A를 두 개 이상 포함한 종류의 수를 구하시오. [7점]

(2) E, F, G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각각 2개씩 있다. 이들 총 6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5개를 골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의 수를 구하시오. [8점]

2.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가. 출제의 방향

이번 자연계 논술 시험은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학 문제로만 구성하여,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리적 문제 상황을 만들고, 논리적인 사고를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 문제로 구성하였다. 개별적인 교과지식의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묻는 것을 지양하고,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나. 문항별 출제의도

[문제 1(1)]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이해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1(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1(3)]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이해하고,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논리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2(1)] 쌍곡선의 뜻을 알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2(2)] 주어진 상황을 쌍곡선과 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하고, 이들 이차곡선의 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3(1)] 주어진 가속도로부터 정적분을 통해 속도와 위치를 구한 후 속도가 위치의 도함수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위치의 극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3(2)] 움직인 거리가 속도의 절댓값을 정적분하여 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 구간별로 부호가 바뀌는 속도를 주어진 구간에 대해 정적분 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4(1)] 중복순열과 조합을 응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

[문제 4(2)] 중복순열을 새롭게 응용하여 적용하는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

다. 출제근거

1) 교육과정 근거

문항		관련 성취기준
문제 1(1)	교육과정	[수학]-(나) 방정식과 부등식-[4] 여러 가지 부등식 ①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다) 도형의 방정식-[2] 직선의 방정식 ①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라) 여러 가지 부등식 수학1241.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3) 도형의 방정식-(나) 직선의 방정식 수학1321.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제 1(2)	교육과정	[수학]-(나) 방정식과 부등식-[2]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③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학]-(가) 다항식-[1] 다항식의 연산 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나)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수학1223.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학]-(1) 다항식-(가) 다항식의 연산 수학111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문제 1(3)	교육과정	[미적분]-(다) 다항함수의 미분법-[3]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미적분]-(3) 다항함수의 미분법-(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2(1)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가) 평면 곡선-[1] 이차곡선 ③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기하와 벡터]-(1) 평면곡선-(가) 이차곡선 기백1113.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제 2(2)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가) 평면 곡선-[1] 이차곡선 ③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다) 도형의 방정식-[3] 원의 방정식 ①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나) 방정식과 부등식-[3] 여러 가지 방정식 ②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과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기하와 벡터]-(1) 평면곡선-(가) 이차곡선 기백1113.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3) 도형의 방정식-(다) 원의 방정식 수학1331.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2) 방정식과 부등식-(다) 여러 가지 방정식 수학1232-2.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문제 3(1)	교육과정	[미적분] (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 3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 (라) 다항함수의 적분법 - 3 정적분의 활용 ② 정적분을 활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미적분]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6.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 [미적분] (4) 다항함수의 적분법 - (다) 정적분의 활용 미적1432. 정적분을 활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2)	교육과정	[미적분] (라) 다항함수의 적분법 - 3 정적분의 활용 ② 정적분을 활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미적분] (4) 다항함수의 적분법 - (다) 정적분의 활용 미적1432. 정적분을 활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4(1)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가) 순열과 조합 - 2 순열과 조합 ① 순열의 뜻을 알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1. 순열의 뜻을 알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2.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3-3.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4(2)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 (가) 순열과 조합 - 2 순열과 조합 ① 순열의 뜻을 알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1. 순열의 뜻을 알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2.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 순열과 조합 - (나) 순열과 조합 미적1123-3.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문항	출처
문제 1(1)	[수학]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24쪽, 118쪽 [수학]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24쪽, 164쪽
문제 1(2)	[수학]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24쪽, 89쪽 [수학]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24쪽, 12쪽
문제 1(3)	[미적분]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117쪽, 120쪽
문제 2(1)	[기하와 벡터]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27쪽
문제 2(2)	[기하와 벡터]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34쪽 [수학]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24쪽, 186쪽
문제 3(1)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42쪽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226쪽
문제 3(2)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142쪽 [미적분] 동아출판, 우정호외 25인, 2014년, 226쪽
문제 4(1)	[확률과 통계]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18쪽 [확률과 통계]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30쪽
문제 4(2)	[확률과 통계]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18쪽 [확률과 통계] 미래엔, 이강섭외 15인, 2014년, 30쪽

3. 평가기준

가. 배점기준표(자연계열)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1)	8	*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는가? * 수리적 풀이가 정확한가? *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문제1(2)	7	
문제1(3)	10	
문제2(1)	5	
문제2(2)	10	
문제3(1)	8	
문제3(2)	7	
문제4(1)	7	
문제4(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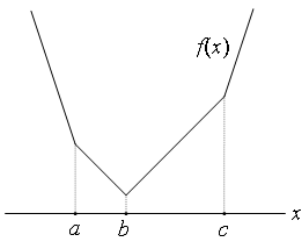
나. 채점기준

- * 각 문제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답안에서와 같이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 도출 과정이 옳으나 계산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1점을 감점한다.
- * 답안을 서술하면서 식만 나열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1점을 감점한다.

〈문제 1(1)〉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8점]

$$\textcircled{1} f(x) = |x-a| + |x-b| + |x-c| = \begin{cases} (a+b+c) - 3x, & x \leq a \\ -(a-b-c) - x, & a < x \leq b \\ -(a+b-c) + x, & b < x \leq c \\ -(a+b+c) + 3x, & x > c \end{cases}$$

② 그래프 그리기



③ 따라서 $f(x)$ 의 최솟값은 $f(b) = |b-a| + |b-c| = (b-a) + (c-b) = c-a = R$ 이다.

〈문제 1(2)〉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점]

$$\textcircled{1} g(x) = (x-a)^2 + (x-b)^2 + (x-c)^2 = 3x^2 - 2(a+b+c)x + (a^2 + b^2 + c^2)$$

$$= 3\left(x - \frac{a+b+c}{3}\right)^2 - \frac{(a+b+c)^2}{3} + (a^2 + b^2 + c^2)$$

② $g(x)$ 의 최솟값은 $-\frac{(a+b+c)^2}{3} + (a^2 + b^2 + c^2)$ 이다.

$$\textcircled{3} -\frac{(a+b+c)^2}{3} + (a^2 + b^2 + c^2) = \frac{2(a^2 + b^2 + c^2) - 2(ab + bc + ca)}{3}$$

$$= \frac{1}{3}\{(a-b)^2 + (b-c)^2 + (c-a)^2\}$$

$$= \frac{1}{3}(P^2 + Q^2 + R^2)$$

〈문제 1(3)〉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0점]

- ① $h(x) = (x-a)^3 + (x-b)^3 + (x-c)^3$

$$= 3x^3 - 3(a+b+c)x^2 + 3(a^2+b^2+c^2)x - (a^3+b^3+c^3)$$
- ② $h'(x) = 9x^2 - 6(a+b+c)x + 3(a^2+b^2+c^2)$

$$= 3\{3x^2 - 2(a+b+c)x + (a^2+b^2+c^2)\}$$
- ③ $D = (a+b+c)^2 - 3(a^2+b^2+c^2) = 2(ab+bc+ca) - 2(a^2+b^2+c^2)$
- ④ $D = -\{(a-b)^2 + (b-c)^2 + (c-a)^2\} < 0$ 이므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x) > 0$ 이다.
- ⑤ 따라서 $h(x)$ 는 증가함수이므로, $a \leq x \leq c$ 인 범위에서 함수 $h(x)$ 의 최솟값은
 $h(a) = (a-b)^3 + (a-c)^3 = P^3 - R^3$ 이다.

〈문제 2(1)〉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점]

- ① 이 배는 B기지에 더 가까우며 두 기지까지의 거리의 차는
 $0.0005 \times 200000 = 100$ km이다.
- ② 두 점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모양의 항로를 따른다면,
 이 거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2a = 100$, $a = 50$ 이다.
- ③ 따라서 이 배가 해안에 닿는 지점의 x 좌표는 50이다.

〈문제 2(2)〉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0점]

- ① 이 배는 A기지에 더 가까우며 두 기지까지의 거리의 차는
 $0.001 \times 200000 = 200$ km이므로 $a = 100$ 이다.
- ② 두 초점이 $A(-120, 0)$, $B(120, 0)$ 이므로, 쌍곡선의 식 $\frac{x^2}{100^2} - \frac{y^2}{b^2} = 1$ 에서
 $120^2 = a^2 + b^2$ 이 성립한다.
- ③ $a = 100$ 이므로 $120^2 = 100^2 + b^2$ 에서 $b^2 = 120^2 - 100^2 = 14400 - 10000 = 4400$ 이다.
 따라서 쌍곡선의 식은 $\frac{x^2}{100^2} - \frac{y^2}{4400} = 1$ 이다.
- ④ A기지와 B기지 사이의 중점은 좌표평면의 원점이고,
 이 지점에서 $20\sqrt{70}$ km 떨어져있는 배의 위치 (x, y) 는
 원의 방정식 $x^2 + y^2 = 28000$ 을 만족한다.
- ⑤ 따라서 ③의 식과 ④의 식을 연립하여

$$44x^2 - 100y^2 = 440000$$

$$100x^2 + 100y^2 = 2800000$$

$$144x^2 = 3240000, \quad x^2 = 22500, \quad x = \pm 150 \text{ 이다.}$$
- ⑥ 배가 A기지에 더 가까우므로, 이 배의 위치의 x 좌표는 -150 이다.

〈문제 3(1)〉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8점]

- ① $v_0 = 2$ 로부터 가속도 $a(t) = -e^t$ 을 정적분하여 얻은 점 P의 속도는

$$v(t) = v_0 + \int_0^t a(u)du = 3 - e^t \text{ 이 된다.}$$
- ② $x_0 = 0$ 로부터 속도 $v(t) = 3 - e^t$ 을 다시 정적분하여 얻은 P의 위치는

$$x(t) = x_0 + \int_0^t v(u)du = 3t - e^t + 1 \text{ 이 된다.}$$
- ③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도달한 시간은 $v(t) = 0$ 일 때, 즉 $t = \ln 3$ 이다.
- ④ 이 때 점 P의 위치는 $x(\ln 3) = 3\ln 3 - 2$ 가 된다.

〈문제 3(2)〉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점]

- ① 점 P가 시각 $t=0$ 부터 시각 $t=2$ 까지 움직인 거리는 $\int_0^2 |v(t)|dt$ 이다.
- ② $0 < \ln 3 < 2$ 이므로 속도 $v(t)$ 는 시각 $t=0$ 부터 시각 $t=\ln 3$ 까지는 양의 값을, 그 이후는 음의 값을 가진다.
- ③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int_0^2 |v(t)|dt = \int_0^{\ln 3} (3 - e^t)dt - \int_{\ln 3}^2 (3 - e^t)dt = 6\ln 3 + e^2 - 11$ 이 된다.

〈문제 4(1)〉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점]

- ① 4종류의 아미노산 5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의 수는 $4^5=1024$ 가지이다.
- ② 이들 중 아미노산 A를 한 개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3^5=243$ 가지이고, 아미노산 A를 한 개만 포함하는 경우는 ${}^5C_1 \times 3^4=405$ 가지이다.
- ③ 이로부터 아미노산 A를 2개 이상 포함하는 단백질 종류의 수는 $1024-243-405=376$ 가지가 된다.

〈문제 4(2)〉 아래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8점]

- ① 3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각각 최대 2개까지 뽑아서 5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A), n(B), n(C)) = (2, 2, 1), (2, 1, 2), (1, 2, 2)$ 세 가지이다.
- ② 그 각각의 경우 배열 가능한 단백질의 종류의 수는 ${}^5C_2 \times {}^3C_2 \times {}^1C_1 = 30$ 가지가 된다.
- ③ 이로부터 전체 단백질 종류의 수는 $3 \times 30 = 90$ 가지가 된다.

논술우수자전형 주요사항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인원	모집단위	인원	모집단위	인원
국어국문학과	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	바이오생명공학과	12
영어영문학과	13	법학과	11	간호학과	인문 8
독일어문·문화학과	5	지식산업법학과	11		자연 10
프랑스어문·문화학과	5	수학과	6	글로벌의과학과	5
일본어문·문화학과	9	통계학과	7	식품영양학과	8
중국어문·문화학과	9	화학학과	7	사회복지학과	9
사학과	6	서비스·디자인공학과	10	운동재활복지학과	6
정치외교학과	8	융합보안공학과	16	글로벌비즈니스학과	6
심리학과	9	컴퓨터공학과	10	의류산업학과	10
지리학과	8	정보시스템공학과	10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8
경제학과	11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10	문화예술경영학과	6
경영학과	14	바이오식품공학과	9	합계	311

2. 지원자격

지원자격

○ 2019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12년제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최소 23학기). 예외적으로 12년 미만 학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한 국가에서 이수하거나 부족한 수학기간을 대학에서 이수해야만 지원 가능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 지정영역	최저학력기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문화학과,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일본어문·문화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 간호학과(인문), 사회복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의류산업학과,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 상위 1과목 (4개 영역)	2개 영역의 등급 합 5 이내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간호학과(자연), 글로벌의과학과, 식품영양학과		2개 영역의 등급 합 6 이내

※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합계
일괄합산	70% (70점)	30% (30점)	100% (100점)

4. 논술고사 계열 안내

계열 구분	모집단위
인문계 논술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문화학과,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일본어문·문화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 간호학과(인문), 사회복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의류산업학과,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자연계 논술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간호학과(자연), 글로벌의과학과, 식품영양학과

5. 선발방법

- 가. 논술우수자 전형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모집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나. 논술고사 결시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라. 동점자는 우리 대학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합니다.
- 마.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바. 모집인원 미달, 총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정시모집 일반학생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온라인자료 미작성고교 지원자, 201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2014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미동의자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	○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 NEIS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의 대입전형 자료 확인 및 사전 온라인제공 신청 필수) ○ 검정고시 전산자료 활용 미동의자, 2013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는 우편 제출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수, 모집요강 p.54 참조)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 활용 미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전산자료 활용 미동의자, 2013년 이전 합격자),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 제출서류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한 “봉투표지”를 부착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미달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제출 마감: **2018.9.17.(월)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장소: (우: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행정관 101호)

7. 전형료 : 45,000원

논술고사 안내

1. 논술고사 일정

전형	고사장 발표	고사일자	장소
논술우수자	2018.9.28.(금)	2018.10.7.(일)	돈암 수정캠퍼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논술고사 일정 및 장소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논술고사 유의사항

가. 고사시간: 100분

나. 고사장 및 세부일정은 2018.9.28.(금)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sungshin.ac.kr)에 공지합니다.

개인별 시험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 고사장 발표 시 본인의 입실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라. 수험생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마. 답안은 볼펜 또는 연필로 작성 가능하며, 컴퓨터용 사인펜 등 필기구는 개별 준비해야 합니다.

바. 모집단위(학과)별 수능최저학력기준 및 논술고사 계열 구분에 대한 안내는 p.25, p.26을 참고 바랍니다.

사. 고사장에는 휴대폰이나 기타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지참을 금지합니다.

3. 논술고사 개요

유형	- 인문계열 : 4~5개의 지문 또는 자료를 제시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 자연계열 :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안과 그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수리 논술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평가방향	- 단순 암기나 전공지식이 아닌, 지원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인문계열 :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문제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제시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 - 자연계열 :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내에서 수학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
문항 수	인문계열: 2문항 내외 / 자연계열: 4문항 내외
시험시간	100분
답안분량	인문계열 : 각 문항 당 800 ~ 1,000자 내외 / 자연계열 : 지정된 답안지 양식 내 작성
답안형식	인문계열 : 원고지 형식 / 자연계열 : 노트형식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생부 반영 영역 : 교과성적, 출결상황

2. 학생부 반영학년

가. 졸업자 : 1, 2, 3학년 전(全) 과정의 학생부

나.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3.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내용
논술	논술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성적 90% + 비교과(출석)성적 10% ○ 교과성적은 학년별 교과목 이수 단위 가중치 부여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반영) ○ 비교과영역은 출석성적만 반영 <p>※ 논술우수자 전형의 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는 비교내신 적용</p>

※ 학생부 및 출석성적 반영방법, 비교내신 적용 방법 등 기타 지원자가 유의하여야 할 상세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장학제도

1. 신입생 장학제도 (2019학번)

가.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각 모집시기 세부전형별 최초 합격자 중 다음의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자선장학금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자와 정시모집 학과수석자는 최종등록자 기준으로 선발)

장학종목	선발기준	장학금액 및 특전	입학 후 수혜기준
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최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1명 - 논술우수자전형 최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1명 ▶ 정시모집 최우수자 5명 (수능 지정영역이 3개인 학과 1명, 4개인 학과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2학년 매학기 등록금의 60%를 학기 초에 지급하고 40%는 정규8학기 재학 시 취업 지원금으로 지원) ○ 도서구입비 + 학업보조비 (매월 50만원) ○ 방학 중 외국대학 어학연수(1회) ○ 전(술) 학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자 중 본교 대학원 진학 시(석사 2년, 박사 2년) 등록금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과락(F)없이 4.0 이상이어야 함 ○ 6학기 때부터 토익 800점 이상(토플 및 텡스는 이에 준하는 성적)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 (유효기간 내 성적 제출의무)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2명 - 논술우수자전형 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1명 ▶ 정시모집 우수자 10명 (수능 지정영역이 3개인 학과 2명, 4개인 학과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2학년 매학기 등록금의 60%를 학기 초에 지급하고 40%는 정규8학기 재학 시 취업 지원금으로 지원) ○ 도서구입비 + 학업보조비 (매월 20만원) ○ 방학 중 외국대학 어학연수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과락(F)없이 3.6 이상이어야 함 ○ 6학기 때부터 토익 800점 이상(토플 및 텡스는 이에 준하는 성적)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 (유효기간 내 성적 제출의무)
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7명 - 논술우수자전형 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3명 ▶ 정시모집 우수자 15명 (수능 지정영역이 3개인 학과 3명, 4개인 학과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2학년 매학기 등록금의 60%를 학기 초에 지급하고 40%는 정규8학기 재학 시 취업 지원금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기 때부터 토익 800점 이상(토플 및 텡스는 이에 준하는 성적)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 (유효기간 내 성적 제출의무)
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자 인문계열 24명 /자연계열 16명 - 논술우수자전형 우수자 인문/자연계열 각 5명 - 교과우수자전형 우수자 15명 ▶ 정시모집 우수자 25명(수능 지정영역이 3개인 학과 5명, 4개인 학과 20명) 또는 학과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학기에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과락(F)없이 3.60 이상이어야 함

나. 실기우수자 장학금

장학종목	선발기준	장학금액	입학 후 수혜기준
실기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일반학생(실기)전형 뷰티산업학과, 미술대학, 음악대학,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 최초 합격자 중 학과별 상위 2명 (단, 음악대학은 성악과 2명, 기악과 6명(피아노전공 2명, 관악전공 2명, 현악전공 2명), 작곡과 작곡전공 상위 2명을 선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우수자 수석 : 1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실기우수자 차석 : 1년간 등록금 50% (입학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1학기에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과락(F)없이 3.0 이상이어야 함

다. 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입학성적우수, 실기우수자장학금 공통)

- 1) 학과별 계열은 모집요강 내 학과별 계열 구분에 따릅니다.(단, 수시모집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의 뷰티산업학과는 자연계열에 포함합니다.)
- 2) 장학생 선발 대상자가 복수의 장학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3) 동점자 발생, 상위 장학금 대체 선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종 장학생 선발인원은 사전에 계획된 인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최초 장학생 선발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단, 자선장학금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자와 정시모집 학과수석자는 최종등록자 기준으로 선발)
- 5) 입학 후 모든 장학금 지급은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릅니다.

라. 기타 장학금

장학종목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자녀	등록금 70%(입학금 제외)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 입학학기 초에 신청 ○ 매학기마다 신청해야 함 ○ 재학 중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학기별 장학생 신청공고를 참고
성신사랑	○ 소득3분위 이내 가구 (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등록금 60%(입학금 제외)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성신희망	○ 소득5분위 이내 가구 (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등록금 50%(입학금 제외)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자매	○ 자매가 동시에 입학한 경우 1명 또는 자매가 동시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 중 1명	80만원	
보훈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등록금 전액 (신청학생 자격에 따라 변동 가능)	○ 입학학기 초에 신청 ○ 국가보훈처 및 통일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처리함
성인가족	○ 모(母)가 학부 졸업생 또는 재학생인 자	50만원	○ 입학학기 초에 신청 ○ 입학학기 1회만 지급
우수교교특별	○ 3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한 교교의 해당교교장이 추천한 자(교교별 1명)	200만원	○ 입학학기 1회만 지급
향란	○ 장에 5등급 이내 판정을 받은 자	100만원	○ 입학학기 초에 신청 ○ 입학 후 지급기준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학기별 장학생 신청공고를 참고
성신 음악콩쿠르 우수자	○ 성신음악콩쿠르 부문별 1위 입상자 중 입상일로부터 2년 이내 본교 음악대학 입학자	1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입학 후 수혜기준 : 1학년 1학기에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과락(F)없이 3.0이상이어야 함
성신 무용경연대회 우수자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 고등부 고학년 개인부문 각 부문별(한국무용, 발레) 최우수 입상자 중 입상일로부터 1년 이내 본교 무용예술학과 입학자		
공로 S	○ 현 국가대표 운동선수, 국립예술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및 전문예술분야에서 성신의 위상을 높이는 자 중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매학기 자격유지조건 심사하고 계속수혜여부를 결정함
국가장학금 (1,2유형)	○ 가구 소득수준 8분위 이하인 자 (한국장학재단 심사)	등록금 일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시기 등은 변경 가능
국가우수 장학금	○ 신입생 중 수능성적 우수자, 또는 수시전형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	4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장학사정관 추천 장학금	○ 급박한 가계곤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 지속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자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일부	○ 학기별 신청 ○ 장학사정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장학금액 별도 책정

2. 재학생 장학제도

가. 교내장학금

성신21세기장학금	성적최우수장학금	성적우수1장학금	성적우수2장학금
성신장학금	멘토링장학금	향학장학금	성신사랑장학금
성신희망장학금	형설장학금	면학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리더십우수장학금	향란장학금	봉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공로장학금	고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방송언론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어학능력향상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해외인턴십장학금
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S+마일리지장학금
포러스장학금	트레이니장학금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자매장학금
외국인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활동우수장학금	외국인면학장학금	보훈장학금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나. 베품기금 장학금 : 성신여대 총동문장학회 장학금 외 50여종

다. 외부장학금 : 경방육영회장학금 외 35여종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Tel. 02-920-7012·7014·7495)

캠퍼스 안내

돈암 수정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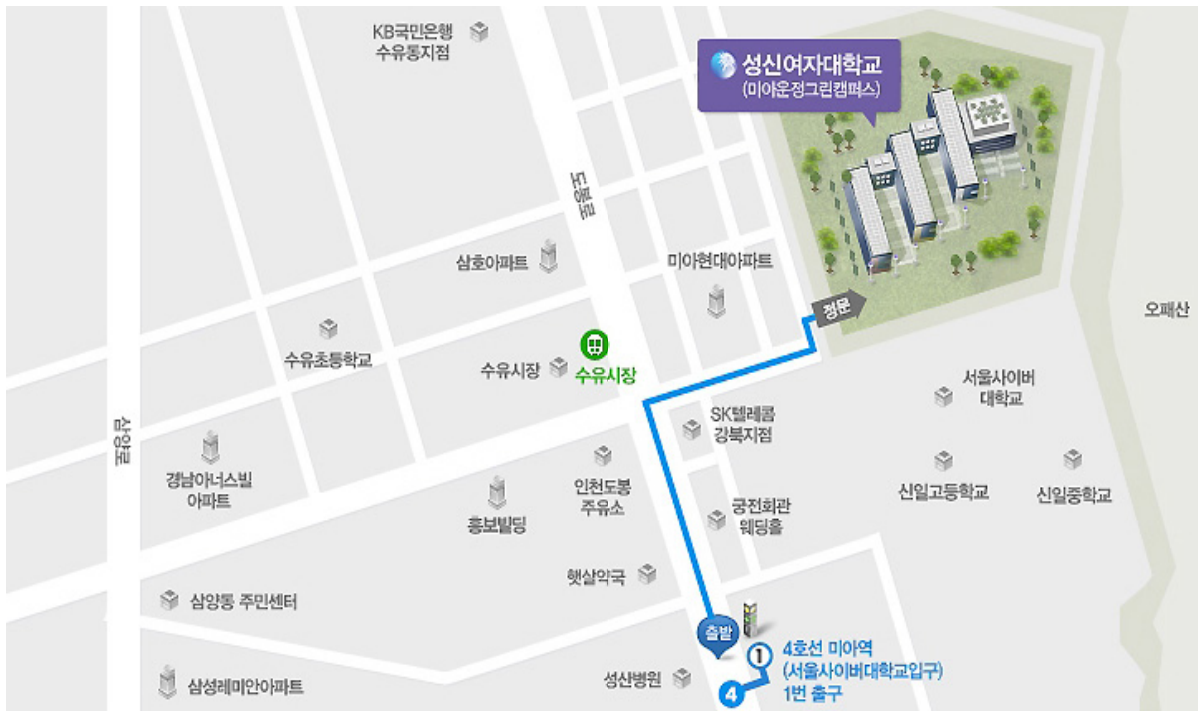


-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 성신여대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성신여대 정문이 보입니다.



- | | | | | | | |
|----------|--------|---------|-----------|-------------|---------|------------|
| 1. 행정관 | 2. 난향관 | 3. 조형1관 | 4. 조형2관 | 5. 음악관 | 6. 수정관 | 7. 프라임관 |
| 8. 행정애국관 | 9. 성신관 | 10. 체육관 | 11. 중앙도서관 | 12. 학생회관 S² | 13. 기숙사 | 14. 미디어정보관 |

미아 운정그린캠퍼스



- 지하철(4호선 미아역): 미아역(서울사이버대학교입구) 1번 출구로 나오셔서 300m 정도 걸어오시다가 우회전하여 200m 더 오시면(도보 8분 예상) 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 정문이 보입니다.





수정캠퍼스 :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운정그린캠퍼스 :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입학상담안내 | 입학관리팀 02)920-2000 | ipsi,sungshin.ac.kr